

보성군 보성고, '자율형공립고 2.0' 전남 유일 선정

보성군·보성고·교육지원청 협력으로 미래 인재 육성 거점 학교 도약... 지역 교육 혁신 기대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27일 보성고등학교(교장 김문주)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4차 공모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보성고등학교를 비롯해 보성교육지원청과 보성군이 협력한 결과로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교육 혁신의 대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성고는 이번 선정으로 ▲지역 특화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학생 소질·적성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등을 추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특히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교육 자율성, 교장공모제, 교사 100% 초빙제 등 폭넓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보장돼 교육발전특구의 거점고등학교로 자리매

김할 전망이다.

보성고는 2025학년도부터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한 문화관광·농수산 융합 분야 교육모델을 준비 중이며, 동신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수산해양대학, 순천대학교 농생명과학과, 목포대학교 국제차문화학과 등과 협약을 맺고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성과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사업이 맞물려 보성형 미래 인재 양성 체계 완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보성군 RISE 사업'은 보성군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전문 강사 양성, 목공예 창업 연계 교육 등 실무형 특화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자율형공립고 2.0 지정과 교육발전특구, RISE 사업이 서로 연계돼 보성군 교육 혁신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김문주 보성고등학교장은 "이번 선정은 보성고·보성교육지원청·보성군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교직원들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꿈과 진로에 맞춘 교육을 통해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성과는 단순

히 한 학교의 성과가 아니라,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함께 만든 교육 혁신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보성군은 교육지원청과 지역 대학, 협력기관과 힘을 모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중심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장성군이 딸기 재배농가 대상 꽃눈 분화 검사를 9월 20일까지 지원한다.

딸기는 낮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낮은 온도로 일정한 기간 기다렸다가 아주 심기(정식)를 해야 꽃눈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딸기 꽃눈 분화 검사는 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딸기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꽃눈 분화 상황을 확인하는

장성군, 고품질 딸기 재배 돕는다

9월 20일까지 재배농가 대상 꽃눈 분화 검사 지원

것을 말한다.

검사를 통해 꽃눈 분화 단계를 확인한 뒤, 포장에 옮겨 심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수확시기 지연을 막는 것은 물론,

고품질 딸기 생산에도 유리하다.

기간 안에 딸기묘 3-5주를 채취해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가져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해 딸기 꽃눈 분화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품질 딸기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의 딸기 재배 규모는 226농가 86헥타르(ha)로 전라남도 2위 수준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곡성군, 곡성명품농업대학으로 농업을 더 스마트하게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및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을 추진한다고 29일 전했다.

7, 8월에는 폭염 등으로 방학 기간을 갖은 뒤 돌아오는 9월 11일부터 하반기 교육을 시작한다. 하반기 교육은 총 5회 2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내용은 9월에는 각종 사업계획서, 공모서 작성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 10월에는 농업박람회 현장견학, 11월에는 사업계획평가회와 졸업식으로 구성돼 있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매년 사업계획평가회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정하고 다음 연도에 농업 CEO육성 기반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도 우수한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11월 사업계획평가회에 많은 교육생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제15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을 개설하여 '스마트농업반' 33명의 교육생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8회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모델을 구축하고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역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1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개 과정 6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 계획 방향 등 논의

완도군은 지난 26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제4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전라남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식품연구원 등 해양바이오 기관 및 학계 전문가, 기업 대표 등 22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 계획('26~'30) 수립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해조류 완전 이용 기반 시설 확보'에 대한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해조류 1차 가공 후 남은 줄기, 잎 등을 말하는 세컨드 컷이 연간 많은 양이 발생한다"면서 "세컨드 컷을 활용한 산업 소재 대량 생산과 자원 순환 소재 생산을 위해 기반 시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완도군 관내 해양바이오 기반 시설 간 협력 체계 마련 및 권역별 협력 지구 연계 방안과 함께 향후 완도군이 갖춰야 할 해조류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의견이 제시됐다.

순영진 전남도 수산유통과장은 "전남도는 해양바이오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양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제품 개발,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상훈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부터 그린 바이오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해양바이오산업 분야도 육성이 필요해 전남도와 완도군 차원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완도/장성우 기자

화순군, 청년들의 취업 준비 및 일상 회복에 총력

실무형 OA 기초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9일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의 거점 공간인 '청춘오름'에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직무 적응을 위해 9월 한 달간 실무형 OA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세~49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단념을 하지 않도록 취·창업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관내 중소기업탐방, 부모 교육, 맞춤형 상담, 청년정책 안내 및 연계를 통한 취·창업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일상 회복 및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번에 진행될 프로그램에서는 AI 및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용법을 익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이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5세~4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QR 또는 고충24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는 라탄 공예 교육, 스마트 스토어 교육, 마크라메 공예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상과 격려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



체 야구 관람의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청년성장프로젝트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천, 강진, 영암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화순군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청년카페 '청춘오름'에서는 화순 청년들의 맞춤형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일상 회복 프로그램, 청년정책 안내 및 연계를 통한 취·창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더불어 취업 준비 및 청년들의 일상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

화순/김종환 기자

글로벌 관광도시 순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격화

9월 26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맞춤형 대응 본격 추진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순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6월에는 22.2%, 7월에는 38.0% 늘어나며 여름철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집중됐다. 시는 오는 9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 전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항을 통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에게는 항구에서 순천까지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중국어 해설사가 동승하는 환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념품, 중국어 안내 지도, 관광지 할인권 등이 포함된 웰컴 패키지를 제공해 짧은 일정 속에서도 만족도를 높인다. 개별 관광객에게는 순천역 관광안내

소에 중국어 해설사를 배치하고 전용 코스맵을 제공한다.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포토존, 중국인 친화 맛집·카페 지도, K-뷰티·한복·로컬공방 체험 등도 준비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 → 체류 → 소비 →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중국어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홍보 강화 ▲음식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 인증제 도입 ▲숙박시설 위생관리 및 간편결제 도입 ▲K-뷰티 팸투어와 전통시장 쇼핑 연계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셔틀버스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원 위케이션, 예코촌 숙박, 마우스테이 '실랑계', 사운드 순천, 씨워킹 등 체류형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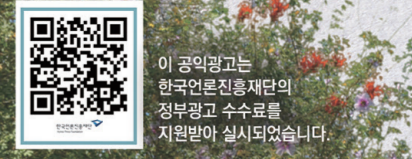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간에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작지만 마음의 보이는 공간은 책에서
기어코 세 생애...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및 장이나 될까... 새삼처럼... 한 번도... 기억할 것.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 잠시... 리우고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한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 것
좋은 거라면... 한 것
우연치 않게... 한 것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